

하반기 해외건설 - 발주 감소로 조정 국면 지속될 전망

최중석 |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정책지원부장

상반기 수주 실적 대폭 감소

20 15년 상반기 해외건설 수주 실적은 255억 달러로 전년 대비 32.1%, 최근 5년 평균 대비 21.5% 감소하였다. 우리나라 해외건설의 주력 시장·공종에 해당하는 중동/북아프리카 지역 및 산업설비 분야 수주가 평균 대비 각각 64.8%, 33.7% 급감한 때문이다. 반면, 아시아 지역은 평균 대비 67.0% 증가하여 양호한 실적을 기록하였다.

상반기 수주 부진은 2014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유가 하락의 영향이 본격화된 결과로 판단된다. 우선 저유가로 산유국의 재정 수입이 감소하면서 프로젝트

발주 규모도 축소되었다. MEED지(2015. 6. 22)에 따르면 걸프협력회의(GCC) 6개국의 1~5월 프로젝트 계약 실적은 610억 달러로 전년 동기(850억 달러) 대비 2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아울러 저유가로 석유/가스 프로젝트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면서 산유국 국영석유회사(NOC)뿐만 아니라 메이저 석유기업(IOC)도 프로젝트를 보류·취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에너지 분야 리서치 업체인 Rystad Energy는 Shell, BP, ConocoPhillips 등 메이저 석유기업이 13개국에서 1,180억 달러 규모의 26개 프로젝트 추진을 보류한 것으로 조사·발표하였다

지역/공종별 수주 실적

구분	상반기 수주(십억 달러)			증감률(%)		
	2014	2010~14 평균	2015	전년 대비	평균 대비	
지역	중동/북아프리카	24.7	19.8	7.0	-71.9	-64.8
	아시아	6.2	7.8	13.0	109.4	67.0
	기타	6.6	4.9	5.5	-16.5	12.9
공종	산업설비	31.9	22.7	15.1	-52.8	-33.7
	토목	3.0	4.4	3.4	14.3	-22.4
	건축	1.6	4.2	4.8	201.1	14.2
	기타	1.0	1.1	2.2	114.6	96.6
합계	37.5	32.4	25.5	-32.1	-21.5	

주: 2015년 6월 25일 기준. ; 자료 : 해외건설협회.

(Financial Times, 2015. 5. 18). 결국 프로젝트 발주 규모는 감소하고 수주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면서 상반기 수주 실적이 예년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다.

하반기에도 하방 리스크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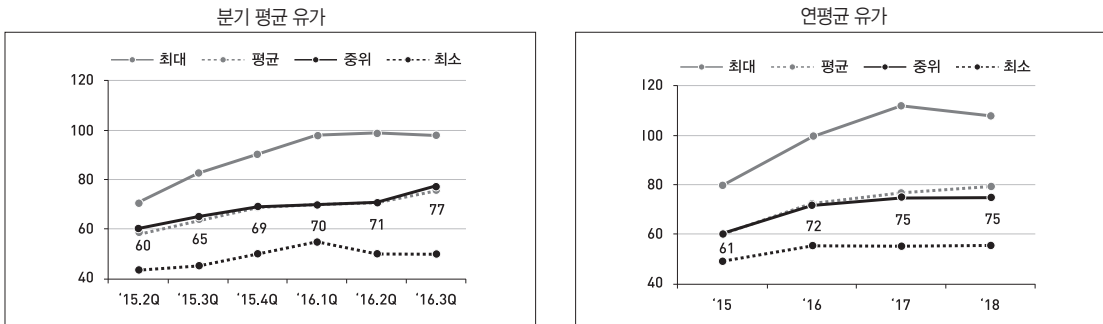
유가 향방은 향후 해외 건설시장 여건을 결정하는 가장 큰 변수임에 분명하다. 2014년 6월 19일 배럴당 115.2달러로 고점을 기록한 브렌트 유가는 이후 하락세로 전환되어 금년 1월 13일 46.6달러까지 추락하였다. 이후 반등세로 돌아서 5월 6일 기준으로 67.8달러까지 회복하였으나 최근 반등세가 주춤한 가운데 60달러 초반 수준에서 횡보하고 있다. 당분간은 공급 초과 상황이 지속되면서 유가는 아주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브렌트유 기준 2015년, 2016년 평균 유가를 각각 60.5달러, 67.0달러로 전망하고 있다. 투자은행들도 아래 그림에 제시된 것처럼 완만한 유가 회복세를 점치고 있다. IMF(2015. 1. 21)에 따르면, 배럴당 60달러 수준에서 재정 균형을 달성할 수 있는 중동/북아프리카 국가는 쿠웨이트가 유일하다. 따라서 하반기에도 석유 수출로부터 발생하는 재정 수입 감소로 주력 시장인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의 프로젝트 발주 위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Goldman Sachs는 유가가 배럴당 60달러 수준을 유지할 경우 전 세계적으로 7,500억 달러 규모의 61개 신규 프로젝트가 리스크에 노출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들 프로젝트의 일일 계획 생산량은 현재 세계 공급량의 10%를 상회하는 물량이다. Morgan Stanley는 구체적으로 2015년 석유/가스 산업 자본 지출(capex) 금액이 2014년의 5,200억 달러 대비 25% 감소한 3,890억 달러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주력 공종인 석유/가스 분야 산업설비 프로젝트 발주도 감소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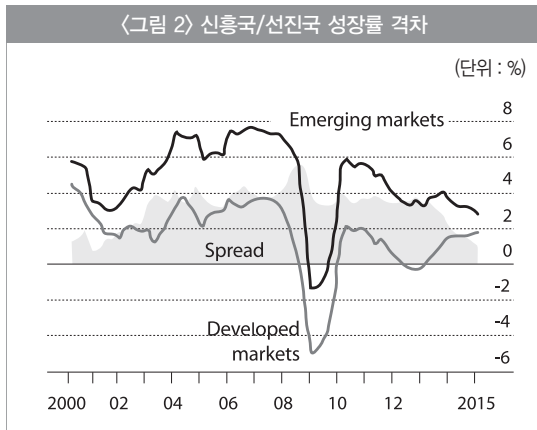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본격적인 경기 회복이 계속 지연되면서, 신흥국의 인프라 투자도 2000년대 중반과 비교할 경우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 등 신흥국의 경제 성장이 크게 둔화되면서 신흥국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는 우울한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Oxford Economics는 금년 1분기 17개 주요 신흥국의 글로벌 무역 기여도가 -0.9%p를 기록했는데, 이는 2009년 이후 처음일 뿐만 아니라 2000~2014년 평균 기여도인 2.5%p를 크게 하회하는 값이라고 밝히면서 신흥국에서 비롯된 경기 침체 가능성을 경고하였다. UBS는 2015년 신흥국과 선진국의 성장률 격차가 0%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Financial Times, 2015. 6. 10). 경기 부진으로 지금도 약세인 신흥국 인프라 투자가

〈그림 1〉 투자은행들의 유가 전망

(단위: 달러/배럴)



주: 브렌트유 기준. ; 자료: 국제금융센터(2015. 6. 15).



주 : UBS, Haver Analytics.

당분간 더욱 위축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지정학 측면에서는 이슬람·레반트국가(ISIS) 및 예멘 사태로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의 정정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사이에 역내 헤게모니를 둘러싼 긴장이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아랍의 봄’ 이후 계속되고 있는 북아프리카 주요국의 혼란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된 서방과 러시아 간 경색 국면도 쉽게 진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 더해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신흥국의 경기 침체가 정정 불안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어 불안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변수도 물론 있다. 중국이 일대일로(一帶一路),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 등 국제 개발 협력을 통해 글로벌 인프라 투자 확대를 도모하고 있어, 향후 유라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프로젝트가 신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란 핵 협상이 최종 타결될 경우 석유/가스 분야를 필두로 인프라 투자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이들 효과가 가시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당장 하반기 수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안정적 사업 포트폴리오 구축 노력해야

올 하반기뿐만 아니라 2016년까지도 지금과 같은 시장 정체/축소 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므로 수익성 우선(value-over-volume)을 기조로 하면서 변화하는 시장 여건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단기적으로는 중동/북아프리카, 아시아 등 주력 시장에서 선택적 집중을 통해 프로젝트 수주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아울러 이란, 이라크, 이집트, 인도, 멕시코, 중앙아시아 등 시장 잠재력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국가/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가치사슬(V/C), 지역, 상품, 사업 방식 등 제반 측면에서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프로젝트 기획, 설계/엔지니어링, 운영/유지(O&M) 등 고부가가치 영역으로 가치사슬을 확대하면서 지역 다변화, 공종 다각화, 사업 방식 다양화를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의 성장 경로(growth path)를 사전에 고민하고, 선택된 성장 경로에 따라 지속적으로 포트폴리오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향후 국제 인프라 개발 협력에서 중국의 위상이 더욱 커질 것은 분명하다. 이미 유라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있으며, 인프라 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금융 플랫폼 구축도 구체화되고 있다. 중국의 국제 인프라 개발 협력 프로그램에 국내 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즉, 중국과 주변국 사이에서 우리의 경제 발전 경험과 사업관리 역량을 활용하여 중간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관여의 폭과 깊이를 더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 학계가 힘을 합쳐 다각적인 대책을 준비할 시점이다. CERIK